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God In Search of Us  
 레위기4장 Leviticus Chapter 4  
 “죄책감, 죄 그리고 수치함” “Guilt, Sin, and Shame”

레위기 LEVITICUS 4: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nd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2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saying, If anyone sins unintentionally, in any of the Lord’s commandments about things not to be done, and does any one of them...

로마서 ROMANS 7:15-19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15 For I do not understand my own actions. For I do not do what I want, but I do the very thing I hate. 16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I agree with the law, that it is good. 17 So now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within me. 18 For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that is, in my flesh.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right, but not the ability to carry it out. 19 For I do not do the good I want, but the evil I do not want is what I keep on doing.

레위기 LEVITICUS 4:3-4

특히,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3 if it is the anointed priest who sins, thus bringing guilt on the people, then he shall offer for the sin that he has committed a bull from the herd without blemish to the Lord for a sin offering. 4 He shall bring the bull 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before the Lord and lay his hand on the head of the bull and kill the bull before the Lord.

레위기 LEVITICUS 4:13-15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 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 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13 “If the whole congregation of Israel sins unintentionally and the thing is hidden from the eyes of the assembly, and they do any one of the things that by the Lord’s commandments ought not to be done, and they realize their guilt, 14 when the sin which they have committed becomes known, the assembly shall offer a bull from the herd for a sin offering and bring it in front of the tent of meeting. 15 And the elders of the congregation shall lay their hands on the head of the bull before the Lord, and the bull shall be killed before the Lord.

## 레위기LEVITICUS 4:22-24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22 “When a leader sins, doing unintentionally any one of all the things that by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his God ought not to be done, and realizes his guilt, 23 or the sin which he has committed is made known to him, he shall bring as his offering a goat, a male without blemish, 24 and shall lay his hand on the head of the goat and kill it in the place where they kill the burnt offering before the Lord; it is a sin offering.

## 레위기LEVITICUS 4:27-29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27 “If anyone of the common people sins unintentionally in doing any one of the things that by the Lord’s commandments ought not to be done, and realizes his guilt, 28 or the sin which he has committed is made known to him, he shall bring for his offering a goat, a female without blemish, for his sin which he has committed. 29 And he shall lay his hand on the head of the sin offering and kill the sin offering in the place of burnt offering.

## 레위기LEVITICUS 5:14-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제물로, 가축 떼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 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오분의 일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인 숫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4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15 “If anyone commits a breach of faith and sins unintentionally in any of the holy things of the Lord, he shall bring to the Lord as his compensation, a ram without blemish out of the flock, valued in silver shekels, according to the shekel of the sanctuary, for a guilt offering. 16 He shall also make restitution for what he has done amiss in the holy thing and shall add a fifth to it and give it to the priest. And the priest shall make atonement for him with the ram of the guilt offering, and he shall be forgiven.

## 레위기LEVITICUS 6:1-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줌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 내는 물건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2 “If anyone sins and commits a breach of faith against the Lord by deceiving his neighbor in a matter of deposit or security, or through robbery, or if he has oppressed his neighbor 3 or has found something lost and lied about it, swearing falsely—in any of all the things that people do and sin thereby— 4 if he has sinned and has realized his guilt and will restore what he took by robbery or what he got by oppression or the deposit that was committed to him or the lost thing that he found 5 or anything about which he has sworn falsely, he shall restore it in full and shall add a fifth to it, and give it to him to whom it belongs on the day he realizes his guilt.

**마태복음MATTHEW 5:23-24, 26**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26.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3 So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24 leave your gift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26 Truly, I say to you, you will never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요한복음JOHN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30 When Jesus had received the sour wine,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